

3월의 기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1.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식과 타협하여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3.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따를지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4.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5.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난 중에서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6.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새롭게 되어서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희망의 설교

오래전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의 설교가 희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며 '희망의 설교'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몰트만 박사 자신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가 되어 영국 포로수용소에 있는 동안, 자신이 살았던 함부르크가 폭격을 당해서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했고, 애인은 죽었으며, 어디를 가도 절망밖에 없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 영국 군목이 몰트만 박사에게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은 곳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속에 희망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만이 절대절망에서 절대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포기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신학'을 전달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본 후 그는 "내가 당시 집회에 몇 번 참석해보고, 당신 같은 말씀을 증거 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이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목회자와 희망의 신학자로서 친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셨으니, 죄인이 되어도 구원받을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 병을 청산해주셨으니 건강해질 희망이 있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매달려서 저주를 청산해 주셨으니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하리니 이를 믿느냐'하는 그 말씀 속에 영생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소망을 바라면, 마음에 소망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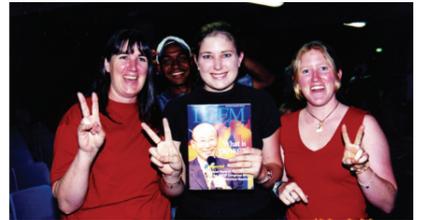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2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성회



호주는 지구촌에서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 때문에 나라 전체가 자연과 인간의 삶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00년 9월 호주에서는 21세기 첫 하계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던 시기에 올림픽 못지않은 영적인 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벌어졌다. 이 영적 축제는 호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골드코스트에서 벌어졌다. 이곳에 있는 서프시티 교회를 비롯, 1백여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 '임팩트 2000' 대회를 개최했던 현장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920km 떨어진 해안도시 골드코스트는 너비 100m가 넘는 은백의 모래 사장이 35km나 뻗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큰 파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서핑(파도타기)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매년 11월부터 1월까지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든다. 이 때문에 골드코스트는 매우 상업적이고 활력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조용기 목사는 모두 7차

레 집회를 갖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호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로우며 삶의 문제를 해결 받는 충만한 삶의 자세를 제시했다.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IMPACT 2000에서 조용기 목사는 27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여섯번에 걸쳐 집회를 인도했다. IMPACT 2000은 골드코스트 하나님의성회가 중심이 되어 각 교단 중진 목회자들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호주의 영적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집회장소인 에벤트 트 펠로우십 교회는 약 2천5백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로 매일 입추의 여지 없이 집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환호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카라라 실내 체육관에서 골드코스트 기도의 날이 개최됐다. 조용기 목사는 또한 골드코스트 시장이 주최한 리셉션에 초청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라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와 성공회, 감리교회가 주류를 이루어 온 곳이다. 영국의 이민자들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호주대륙은 18, 19세기 대영제국의 일원으로서 기독교국가로 성장하면서 힘있는 해외선교에 나섰던 나라였다. 그러나 서구의 전통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이 호주의 장로교회도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침체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비어가고 노인들만이 찾는 곳으로 변했다. 국민의 40%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매 주일 교회에 나가는 신도는 6%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 등 오순절계통의 교회를 중심으로 호주 교회에는 역동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 때 조용기 목사는 골드코스트 임팩트 2000 성회의 주강사로 초청 받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호주교회에 새로운 영적대전을 준 성회로 기록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중지하고 마귀와 대화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형편에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집 안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에서 일어나라. 빨리 천막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내신 것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하늘이 안 보이지요. 천막 안에 있으면 천막 안에 있는 환경만 보입니다. 이미 75세가 되어버린 늙은 아내가 보이고 85세가 되어버린 늙은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땅바닥을 바라보니까 먼지와 티끌만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되고 가슴속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일 일이 보이지 않으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공공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것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본다’

“이 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1~6절)

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야 가슴속에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하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자녀인 것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천막 밑에 좁디 좁은 곳에서 탄식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 광대한 하늘,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 머리털 수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로 쳐다보고 저 광활한 하늘과 저 무수한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3. 십자가 대속의 그늘 밑에 거하라

그 다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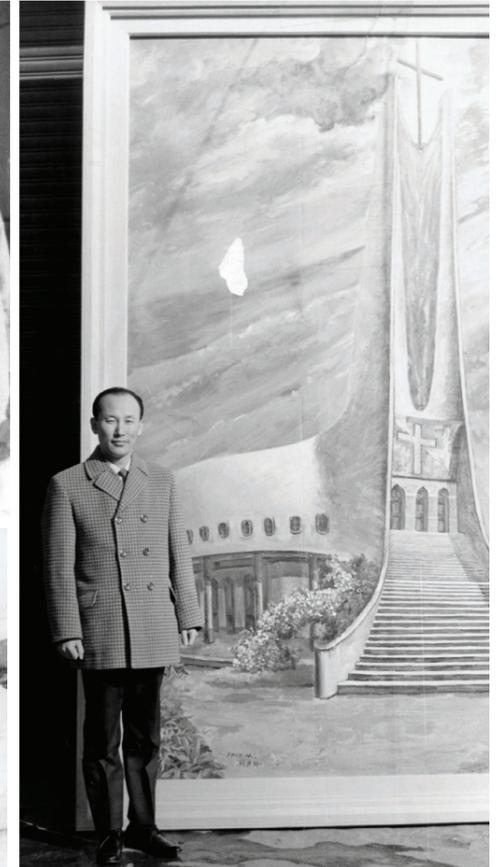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의 그늘에 거하면서 죄 사함과 용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그리고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꿈을 얻고 믿음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고 싶다.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적이 되며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은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꿈을 마음에 가득 채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2)

청년기 / 교회 개척 시기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당시 전도사)는 같은 해 5월 18일에 서울 대조동 최자실 목사(당시 전도사)의 집에서 최 목사의 세 자녀와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다. 최 목사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는 성도의 수가 50여 명에 이르자 마당에 군용 천막을 치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다. 이후 성도가 더 늘어나 마당에서 깨밭으로 자리를 옮겨 대형 천막을 치고 예배를 이어갔다.

조용기 목사는 6.25 전쟁 직후의 황폐한 생활 속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는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성령의 역사로 각종 질병을 가진 성도들이 치유받은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다.

교회 부흥의 불길이 한창 타오르던 1961년 1월 조용기 목사는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교회 개척 3년 만에 재적 성도

가 400명에 이르자 교회부지 600평을 구입해 성전을 건축하려던 때였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를 존 허스톤 선교사에게 맡기고 군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군복무 중 심각한 장 질환으로 수도육군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받았고, 군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회복에 힘 썼으나 차도가 없었다. 결국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조용기목사는 제대 후 수술 부위가 채 아물기 전이었지만 서대문 로터리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샘 토드 목사의 통역을 했다. 신유의 기적이 넘쳤던 이 성회가 끝나고 보름 뒤 조용기 목사는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제2의 개척 예배를 드렸다.

1962년 4월 26일 순복음부흥회관에서 조용기 목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5월 13일에는 교회 명칭을 '순복음중앙교회'로 변경했다. 교회는 개척 2년 만에 30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등 크게 부흥했다. 1965년

3월에 사역의 동반자인 최자실 목사의 딸 김성혜 사모와 결혼식을 올리며 가족이자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다.

교회가 날로 부흥함에 따라 조용기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에는 밀려드는 성도들에게 온 종일 침례를 집례하다 쓰러지고 말았다. 체력적 한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던 중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삼십부장들을 세워 자신의 업무를 분담했던 것에서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본모삼아 가정예배와 교회 내 평신도 여성 리더십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 구역을 조직했다. 조용기 목사는 곁에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재직들을 이끌며, 여성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구역예배를 실시하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켰다.

뉴스레터 3월호에서 이어집니다.